전영애의 '여백서원에서'

없는 법(法)의 자리

이즈음, 내가 지키는 여백서원 곁에서는 '괴테마을'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괴테마을? 생소한 이름인데 뭐지? 무얼 분양하나? 뭐 독일에서 하는 일인가? 물을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여백서원이 자신을, 또 우리를 돌아보는 공간이라면 괴테마을은 그 뜻을 좀더 현대적으로 확장시킨 공간이다. 자신을 아주 잘 키워갔던 한 인물을 실물 예로 보여주면서, 자신과 사회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주고 싶어한다. 큰 인물이 생애의 기초를 닦은 집들이 지어졌고 넓은 뜰은, 누구든 좋아하는 꽃을 가져와 심어 함께 가꾸어가며 주인이 되는 공동체 정원으로 가꾸고 있다.

30여년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괴테 전집 번역작업이 병행되고 있다. 이즈음은 '시 전집'과 '드라마 선집'의 교정을 보고 있는데 그 중 '드라마 선집'은 유독 작품 선정에 고심이 컸었다. 60년을 쓴 대작 '파우스트'도 그러하지만, 다른 드라마 작품도 한 편 한 편이 그야말로 인간 탐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 신화, 문학의 인물들 중 청년 괴테, 장년 괴테, 노년의 괴테를 그때그때 사로잡았던 인물을 그린 만큼, 스스로 큰 인물로 성장해가는 괴테의 눈앞을 어른거리며 얼마만큼 체화되기도 했을 인간상이 보인다. 문체도 각 시기의 특징을 담으면서 한 시대의 획을 긋는다.

예를 들면 괴츠, 정확히는 '강철 손의 괴츠 폰 베를리힝엔'은 괴테가 스물 두 살쯤 쓴 작품인데 젊은 법학도의 관심사가 두드러져 보이고 장면 변화가 56회나 될 만큼 급하고 혼란스러워 질풍노도기의 특징이 역력하다. 주인공 괴츠는 '법'보다는 '주먹 권'이 앞서던 시대, 종교와 권력이 뒤엉키고 권모술수가 횡행하던 어두운 중세를 산 기사이다.

명예를 중시하는 용감한 기사들이 활약했지만 도둑 기사도 횡행하던 시절에 백성들의 신망을 한 몸에 받던 용맹한 기사 괴츠의 올곧은 모습이 1막에서 드러난다. 괴츠의 성(城)과 반대세력인 권력자 주교의 궁(宮)이 주요무대이며 자주 싸움터가 펼쳐진다. 괴츠가 아끼던 시종 기사가 주교 측에 억류되자, 괴츠도 주교가 총애하는 기사 하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잡힌 기사는 괴츠의 어린 시절 친구로, 사로잡혔어도 괴츠의 성에서 기사에 합당한 예우를 받는다. 그러다 잠깐 다녀오려 주교궁에서 갔다가 그만 회유와 미인계에 휘말려 기사의 큰 덕목인 맹세를 깨고, 다시 주교 편에 서서 황제의 힘까지 빌려 적극적으로 괴츠를 모함, 공략한다.

그리하여 괴츠는 황제군에 포위 당하고 반역죄인으로 몰려 자신의 성에 연금당한다. 그러다가 발발한 농민전쟁의 와중에, 괴츠는 아꼈던, 그러나 이제는 폭도가 된 농민들에게 사로잡혀, 지휘관이 되어줄 것을 강요 받아 연금을 어기고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 의연한 괴츠는 결국 감옥에서 죽고 사태를 그렇게 몰고 간 장본인도 여인에게 독살 당한다.

어두운 시대를 산 한 의인의 허무한 죽음을 두고 두 마디의 논평으로 작품이 끝난다. "고귀한 사람! 그를 밀쳐내는 세기(世紀)에 화 있으라!" "그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후세(後世)에 화 있으라!" 그렇게 주인공 괴츠는 죽지만, 그걸 읽는 사람의 마음에 남는 것은 무법천지 세상에서, 실은 법이 있어야 할 자리를 채우는 것, 인간의 의연함, 올곧음이다.

괴테야 자국의 역사 속 한 인물에 대한 이해와 자기 시대에 대한 메시지를 작품에 담았겠지만, 아득한 유럽 암흑시대의 혼란스러운 이야기를 굳이 이 대명천지에서 옮겨 보는 나에게는 다른 것이 보인다.

공간이 멀고 여러 세기가 흘렀고, 법의 강국 독일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좋은 법을 세우려 애써왔지만, 제아무리 보완하고 보정하고 갱신하여 촘촘한 법이 그물 같아도 그것이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는 이즈음 혹독하게 체험하고 있다. 모든 걸, 만능일 수 없는 법적 해결에다만 거는가 하면, 다른 한 편으로는 바로 그걸 손에 쥔 듯한 사람들이 세상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현상도 나날이 목도해야 하는 괴로운 시절을 살고 있다.

한 순간에 허물어질 수도 있는 그런 법에 우리가 무얼로 대응할 수 있겠는가. 허물어진 건 응당 나서서 힘모아 다시 바로 세워야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다. 스무 살 남짓한 괴테가 250년 전에 생각한 것 이상의 대안은 떠오르지 않는다. 없는 법의 자리도, 있는 법의 자리도 그 바탕에는 언제든 인간의 의연함, 올곧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만 새삼 생각하게 된다. 물론 어찌하면 나부터 바른 행보를 할까라는 물음이 곧바로 뒤따른다.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명예교수〉

의료칼럼

뇌졸중 환자를 위한 뇌신경 재활치료

송민근
전남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광주·전남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심뇌재활센터장

뇌졸중은 치명적이며 심각한 후유증과 합병증을 남기는 대표적인 뇌혈관질환이다. 뇌졸중의 치료는 크게 약물치료, 수술, 재활치료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과거에는 뇌졸중이 중대한 질병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장기간의 침상 안정을 권고하였으나 최근에는 뇌졸중 후 남아 있는 기능을 최대한 정상에 가깝게 회복시키기 위해 조기 재활치료와 전문 재활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뇌졸중 환자는 뇌신경 재활치료를 통해 '뇌의 가소성'을 증진시켜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다. '뇌의 가소성'이란 뇌졸중이 발생한 후 주변의 자극 즉, 학습과 반복 훈련 등의 재활치료를 통해 뇌가 적응하고 변화하는 능력을 말한다. 뇌신경 재활치료의 목표는 약물치료, 신경발달치료, 기타 물리운동치료와 작업치료, 언어치료, 연하재활, 인지재활 등을 통해 환자가 독립적인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 수행 능력을 획득하여 가정과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뇌신경 재활치료는 뇌졸중 발생 직후부터 조기 활동을 강조하는 조기재활치료, 감소된 신체기능 및 마비를 회복시키기 위한 집중전문재활치료, 뇌졸중 발병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의 진단 및 치료 등이 있다.

뇌신경재활치료를 시작하기 전 재활의학적 진단 과정으로 모든 환자에서 기능 평가를 시행하게 된다. 기능 평가는 뇌졸중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중증도를 평가함으로써 예후 예측, 개인별 맞춤형 재활치료를 처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또한 질병의 시기에 따라 발생 가능한 다양한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함이며 기능 평가의 결과는 재활치료 전후 기능 회복 평가 및 장애진단의 기초 자료로도 이용된다.

뇌졸중 발병 직후부터 시작되는 조기재활치료는 환자의 혈압, 맥박수, 호흡수, 체온 등과 같은 생체 징후가 안정되고 더 이상 신경학적으로 뇌의 병변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바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뇌신경재활 전문의들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재활치료를 시작할 것을 권고한다. 급성기 뇌졸중 환자에서 여러 합병증과 부동증으로 인해 재활치료 과정이 연장되어 기능 회복이 제한되는 것을 막고 이동과 일상생활 동작 등의 기능적 회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조기재활치료가 꼭 필요하다. 조기재활치료 프로그램은 침상에서 일어나기, 침대 밖으로 이동하기, 보행 훈련, 관절가동 운동, 일상생활 동작 훈련 등을 시행하는 매우 안전한 치료 프로그램이다.

조기 재활치료 시행 후 회복되는 환자의 기능에 맞춰 전문재활치료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전문 재활의료팀은 환자의 기능 상태를 반복적으로 평가하고 회복시점별 환자에게 적합한 신경발달치료를 시행한다. 최근 들어서는 다양한 최첨단 재활 의료장비를 구비하여 최상의 재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료 목적에 맞게 설정된 프로그램에 의해 작동하는 로봇-보조 운동이 가능한 로봇재활, 뇌에 자기자극이나 전기자극을 가하여 뇌의 가소성을 유도하는 신경조절 치료법에 해당하는 반복 경두개 자기자극과 경두개 직류 전기자극, 전신 수중 물치료 및 수중 보행 훈련, 컴퓨터를 이용한 인지재활치료, 기능적 전기자극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뇌졸중 환자들은 뇌졸중의 위험 인자를 조절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하며 정기적인 혈액검사와 기능 평가를 시행하고 약물의 양을 조절해야 한다. 또한 기능 회복 및 유지, 합병증 방지 및 치료를 위해 뇌신경재활치료를 꾸준히 지속해야 한다. 이를 위해 뇌졸중 재활전문병동에서 뇌졸중 전문재활 의료팀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뇌졸중 재활전문병동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일반병동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들보다 낮은 사망률을 보이며 장기 시설로 이송되는 경우도 적기 때문이다.

환자의 의학적 상태와 기능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여 뇌신경재활치료의 강도와 횟수, 시간과 기간 등을 결정하며 뇌신경재활치료의 시작 및 중단 시점은 뇌신경재활 전문의와 상의하여 결정해야 하므로 재활전문병원에서 환자의 기능에 맞는 포괄적 재활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기 고

꽃 핀 쪽으로 뽀짝, 희망으로 뽈깡!

정봉남
제3회 동구 무등산 인문축제 PM

온 국민이 계엄에 저항하고 분노할 때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은 어둠 속의 희망이었다. '빛과 실'이 되어 과거가 현재를,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울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살아 있는 한 희망을 상상하는 일, 그 오래고 깊은 사랑'에 대해 질문하게 했다. '가장 어두운 밤에도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진 존재인지 묻는 언어'를 통해 문학과 삶에 대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다.

문병란 시인의 시 '희망가'를 다시 읽는 조용한 일렁임 또한 곳곳에서 마주했다. "눈 덮인 겨울의 밭고랑에서도/ 보리는 뿌리를 뻗고/ 마늘은 빙점에서도/ 그 매운맛 향기를 지닌다" 시인의 목소리는 우렁우렁 여전히 가슴을 울린다.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6장의 소제목이 '꽃 핀 쪽으로'다. 소설을 읽으면서 오래 참아왔던 눈물은 울음과 통곡이 되어 6장에서 쏟아지고 만다. 소년 동호가 엄마를 부를 때, 심연 가득 뜨겁게 메아리치던 그 말은 캄캄한 데가 아니라 꽃 핀 쪽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었다. 꽃 핀 쪽으로 뽀짝, 다가가려는 열망이 민주주의와 광장을 지켰다.

무등산 증심사지구 일원에서 펼쳐지는 인문 예술 축제가 올해로 3회를 맞았다. 동구 무등산 인문축제는 '인문 For:rest'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인문의 숲이라는 뜻과 함께 쉼과 지구, 나와 내일이라는 주제를 해마다 깊이있게 탐구한다. 올해는 예술적 상상력과 질문으로 '지구를 위한 인문축제(인문 For:Earth)'를 펼친다. 등급도 차별도 없는 무등(無等)의 품, 아름다운 오월의 숲에서 자연과 인문과 예술이 더해진 색다른 사유의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유일한 축제다.

올해 슬로건은 '꽃 핀 쪽으로 뽀짝, 희망으로 뽈깡!'이다. 뽀짝, 뽈깡의 뉘앙스를 아는 분들이라면 크게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전라도 말로 전하는 희망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폭력에서 존엄으로, 차별과 혐오를 넘어선 풍경으로, 그늘진 곳에서 꽃 핀 쪽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시대가 묻고 인문이 답하는 여정이 '인문축제'의 정체성이라면 무등산은 이름부터 이미 민주주의를 사유하는 최적의 장소이고, 무등산이 품은 사람과 자연과 문화는 무등의 인문정신을 체감하는 바로미터다. 사람과 장소와 그곳에 깃든 이야기야말로 진짜 콘텐츠가 아니던가.

그곳에 가야만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하고 새로운 문화, 올해 무등산 인문축제의 핵심 콘텐츠가 민주주의를 사유하는 것과 생태 감수성과 지속가능성의 메시지를 다양한 예술로 표현함으로써 새로운 인문 경험을 제공하는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하는 이유다.

각박한 시대일수록 더욱 그리워지는 감정은 본질적인 것, 당연한 것의 힘이다. 본질이 사라진 자리에 형식만 남지 않길 바라면서 무등산 인문축제는 지구의 아름다움을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장소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연결의 감각을 회복하고 공존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며 즐거운 불편과 유쾌한 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 고요를 찾아 쉼을 누리고 숲에서 작가와 만나 삶을 이야기하며 함께 읽은 진심어린 문장들을 되새기는 사람들, 숲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편백숲에 사는 생명들을 기록하며 새끼 두꺼비의 이동을 살펴 발걸음을 조심하는 사람들, 쓰레기 없는 축제를 만들고 지구력을 높이려는 사람들과 함께라서 더욱 특별하다.

소년 '동호'가 봄날의 오월을 지나 그해 여름으로 건너가지 못했던 시간을 기억하며 두 손을 모은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밝은 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 핀 쪽으로" 나아가 평온하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에도 체온을 덥히는 온기가 머물기를….

무등의 초록이 깊고 푸르러지는 계절에 인문축제의 또 다른 아름다움을 만나러 뽀짝, 뽈깡! 걸음하시길 기쁘게 기다린다.

社 說

KIA 5·18 홈경기 응원전 '오월정신 확장' 환영

오는 18일 광주 KIA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홈 경기에서 응원 함성이 울려 퍼질 예정이다. 이날은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일로 1980년 5·18 이후 프로야구 광주 홈 경기에선 응원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5·18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제했던 것인데 45년만에 처음으로 광주에서 프로야구 팬들의 함성이 울려 퍼진다니 격세지감이다.

5·18 홈 경기 응원전은 광주시가 KIA 타이거즈에 요청해 특별 이벤트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5·18 단체와 5·18기념재단 등 5·18 당사자들이 응원에 찬성해 이뤄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5·18 유족회장은 "5·18을 새롭게 조명하고 야구장에 모인 미래세대가 5·18을 비극의 역사로만 인식하지 않고 살아있는 자산으로 느낄 수 있는 이벤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는데 사고의 전환이다. 5·18 유족 등 관련자들의 인식 전환에 박수를 보낸다.

5·18기념재단의 국민 대상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5·18의 과제는 진실 규명과 왜곡 방지이다. 그 중에서도 젊은층들에게 중요한 것이 왜곡 방지다. 일부 극우세력들의 5·18에 대한 왜곡 폄훼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MZ세대에게 5·18을 인식시키는 방식은 엄숙한 교육이 아니라 축제를 통해 민주주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제는 무거운 분위기를 벗어 던지고 축제를 즐기면서 젊은이들이 5·18을 비극의 역사가 아닌 살아있는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오는 18일 KIA챔피언스필드가 5·18을 새로운 방식으로 기념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왕이면 많은 팬들이 오월정신을 확장하는 현장에서 KIA 타이거즈의 승리를 기원했으면 한다.

위기의 전남 주력산업 석화·철강 대전환 시급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을 시작한 곳은 여수산단이다. 이 후보는 지난 12일 0시 여수산단을 찾아 대한민국 수출 최전선인 국가산단이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산업을 다시 살려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행보는 전통 산업인 석유화학 업종의 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전남의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다. 전남 총생산의 60%를 차지하는 두 업종의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휘청일 정도다. 여수와 광양 등 전남 동부권 경제는 더 이상 추락할 것이 없을 정도로 최악이다. 일자리 감소는 음식점과 숙박업 등 골목상권 침체로 이어지면서 내수가 고사 직전이다.

석유화학과 철강의 침체는 국내 전통 업종의 위기를 상징한다. 정부도 심각성을 반영해 최근 여수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석유화학에 2년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친환경·고부가가치 소재 연구개발(R&D)과 고용지원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것인데 최소한의 대책이다.

근본적인 대책은 탄소배출 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을 친환경·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인데 막대한 재원과 산업 재편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법적 토대가 선행돼야 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가기간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법적 토대가 마련되면 재정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은 어렵지 않게 뒤따를 수 있다.

지자체와 기업들이 민관 합자 형태로 추진중인 여수·광양만권 청정수소 에너지 산업벨트 조성은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의 한 사례다. 새 정부에선 여수산단을 국가산단의 대표 모델로 삼아 사업 재편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길 바란다.

無等鼓

노래의 '힘'

군 제대 후 봉제회사에서 1년간 일했던 가수 김민기는 유신독재가 한창이던 1978년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극 '공장의 불빛' 음원을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한다. 서울대 노래패 '메아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송창식의 개인 스튜디오에서 담요로 창문을 가린 채 녹음한 테이프는 전국으로 퍼져 나간다.

2004년 '공장의 불빛' 음반은 다시 한 번 제작됐고 가수 이적·전인권과 영화 '기생충' 등의 음악을 맡았던 정재일이 참여하며 역사를 이어간다.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공명-기억과 연결된 현재'는 노래로 기억하는 현대사의 현장이다. "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까 있을까/ 분홍빛 고운 꿈나라 행복만 가득한 나라…". '공장의 불빛'에 수록된 '이 세상에 어딘가에'가 잔잔히 흐르는 전시장에 들어서면 역사의 한 순간으로 진입하는 기분이 든다.

광장에서 불렸던 노래들은 큐알 코드와 영상으로 직접 들을 수 있다. '겨레의 노래 1' 음반에 참여해 송창식이 불렀던 '이 세상 어딘가에'를 들으며 전율하고, 1987년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정기공연에서 '이 산하에'를 부르는 가수 김광석의 모습을 보며 뜨거움을 느낀다. '꽃잎처럼 금남로에'로 시작되는 '오월의 노래 2'는 미셸 폴라레프의 샹송 '누가 내 할머니를 죽였나'가 원곡으로 알려져 있다. 이루마가 이 노래를 모티브로 만든 'When the Love Falls'는 드라마 '겨울연가'에 흐르며 인기를 모았다.

흥미로운 작품은 성기완의 'HLKG 518 여기는 라디오 광주'다. 작가는 1980년과 2025년을 연결하는 가상의 라디오 방송국을 만들었고 관람자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 직접 사연을 띄울 수 있다. 작가가 1970~80년대 사용했던 낡은 책상에 앉아 소형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오월 이야기'를 듣자면 역사의 현장에 있는 느낌이 든다.

라디오 사연 중 "45년 뒤 우리는 비슷한 일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광주가 홀로 외롭지 않았습니다"라는 글이 기억에 남는다. 광장에서 함께 노래하며 역사를 만들어간 이들은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연대의 노래를 부르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김미은 여론매체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